



송천2동 새마을부녀회, 봄맞이 환경정비활동 추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수목)은 지난 14일 새봄을 맞이해 송천동 관내 취약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송천2동주민센터 직원 등 30명이 참석해 송천동 다경마트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산책로를 청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송수목 새마을부녀회장은 "비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정비에 참여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는 송천2동을 위해 솔선해서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선 송천2동장은 "송천2동을 위해 늘 앞장서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송천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혁신동, 자생단체와 함께 도심하천 환경정비 활동

전주시 혁신동 주민센터(이성순 동장)는 지난 14일 새봄을 맞아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겨우내 묵은 방지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촌천 도심하천일원 구간에서 대대적인 '새 봄 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원 및 지역구의원 등 6개 자생단체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촌천 주변의 생활폐기물과 하천 제방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비닐 등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여 도심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최성곤 주민자치위원장은 "내가 사는 지역을 청소하는 것은 뜻깊고 보람찬 일"이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혁신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선수범해 환경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위해”

덕진구, 새봄맞이 도심하천 일제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봄철을 맞아 도심하천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덕진구 공무원 250여 명은 지난 14, 15일 이틀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하천의 일제대청소를 추진해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썼다. 각 과·동별 지정된 하천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와 진입계단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하천을 찾은 일부 시민들도 일제대청소에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또한, 덕진구는 4월 말까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과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운동기구와 징검다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5월중에는 배수통문 및 배수펌프장과 세월교 통행차단시설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잠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하천이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14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릴레이로 진행된 전북 14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정책 간담회는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도내 체육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근 열렸다.

간담회에서 각 시·군 종목단체 회장들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체육 발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고, 종목단체 관리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종목단체 지원 △비인기 종목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엘리트·생활체육 동반성장 △학교체육 강화 △체육



관계자 처우개선 △학교체육시설 개방 △체육 영재 발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사항을 비롯한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도지사·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정강선 회장은 “시군 종목단체 회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한가정의학회 전북지회, 전북대 의대에 발전기금 기부

대한가정의학회 전북지회(회장 이상권)가 전북대 의대 발전을 위해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동문 자격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열린 기탁식에는 이상권 회장(이상권 가정의학과의원)과 이행훈 전 회장(삼성가정의학과의원), 유동균 감사(클레오미용성형클리닉), 전북대 의대 임석태 학장, 권근상 교무부학장, 강경표 교육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권 회장 등 관계자들은 전북대 의대가 지역거점 의대를 넘어, 일차 의료현장에서 가정의학과와 중요성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환담도 나눴다.

임석태 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의료상황에서도 기금 기탁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의 상황과 전북의대에서의 가정의학과교실 개설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임석태 학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전해 주신 전북대 의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다양한 아동수당 지원

남원시 여성가족과(과장 임정숙)는 올해 영유아, 아동 3,82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55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 367명에게 월 20~10만 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연령 확대로 금년 4월부터 0~95개월의 전체 아동 3,400여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영아수당과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자5동 새마을부녀회, 관내 환경정비 활동 실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6동(동장 김수정)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희)가 새봄을 맞아 전주 신시가지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효자6동 새마을부녀회원 1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길가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도로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김명희 새마을부녀회장은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